

목포 새 브랜드 '노래의 도시'로

'여수-엑스포' '순천-정원' 처럼 목포만의 매력적 콘텐츠 개발 나서 지역경제 미래성장동력 만들기로

목포시가 목포만의 스토리와 아이덴티티(Identity 독자성·정체성)를 지닌 신 도시브랜드로 '노래의 도시 목포'를 추진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목포시는 25일 "서남해안 시대를 맞아 목포의 새로운 도약과 세계로 퍼져 나가는 목포시의 위상 제고를 위해 신 도시브랜드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부산은 영화의 도시, 여수는 엑스포의 도시, 순천은 정원의 도시가 떠오르지만 목포하면 막상 떠오르는 것이 없다"면서 "특히 목포 경제의 중심축인 조선과 수산(선장) 경기가 한계에 이르면서 '앞으로 목포시는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신 브랜드 개발은 이에 대한 해답을 찾는 민선 6기 최대의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신 브랜드 개발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목포의 브랜드 가치 상승

을 통해 대양산단 등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고, 관광객의 니즈(Needs)를 고려한 매력적인 콘텐츠를 만들어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도시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목포시가 현재 검토 중인 도시브랜드의 키워드는 '노래의 도시, 목포'다.

목포만의 색(色)과 스토리를 담은 문화를 대중적으로 해석할 때 '목포=노래'가 가장 효과적이고 다양한 계층에 걸쳐 폭넓게 알려져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국 대중가요 100년사를 대표하는 불후의 명곡 '목포의 눈물'과 '목포는 향구다'를 남긴 이만영을 비롯한 남진(트롯), 김경호(락), 윤장현(인디밴드), 슈퍼주니어 동해(댄스), 반하나(발라드), 오정혜(국악) 등 목포가 낳은 가수들이 많은 점도 '노래의 도시, 목포' 추진에 동력이 되고 있다.

목포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국내 최고 브랜드 마케팅 전문컨설턴트인 '위드컬처'사는 최근 열린 2차 제안 설명회에서 "가수 '싸이'의 사례에서 확인



목포시청에서 최근 국내 최고 브랜드 마케팅 전문컨설턴트인 '위드컬처'사 주관으로 목포 신브랜드 개발 2차 제안 설명회가 개최됐다.

했듯이 노래가 갖고 있는 파급력은 상상 이상이며, 한국인의 정서와 삶에 빠질 수 없는 것이 노래"라면서 "대한민국의 과거, 현재, 미래의 동력 산업인 '음악'이라는 문화콘텐츠를 목포시만의 도시브랜드로 만들어 세계로 퍼져 나가는 목포의 울림을 창출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위드 컬처사는 이에 대한 실행방안을 ▲국내 아이돌만을 위한 뮤직 페스티벌 개최 ▲비주류 장르까지 아우

르는 오디션 프로그램 ▲'목포, 노래의 도시' 선포식 ▲목포가 낳은 스타 홍보대사 위촉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노래의 도시' 아이덴티티 표현을 위해 유달산 둘레길 코스나 명품 길에 노래 제목 부여, 피아노 건반 모양의 횡단보도나 계단 설치, 주요 관광지에 음악 관련 설치물 조성 등 관광객들에게 친근감과 재미를 선사하는 세부적인 방안도 내놨다.

/목포=임영춘·고규석기자 lyc@

목포해양대 발전기금 기탁 선주협회서 5억6000만원



최민선(오른쪽) 목포해양대학교 총장이 이윤재 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다.

목포해양대학교는 "한국선주협회가 해양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발전기금 5억60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대학본부회의실에서 지난 15일 열린 대학발전기금 발전기금 전달식에는 한국선주협회 이윤재 회장과 장금상선 정태순 회장 등 선사 관계자와 대학관계자, 학생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선주협회에서 기탁한 발전기금은 목포해양대학교의 겸임·초빙 교수 인건비 지원을 비롯한 학생들의 여학 능력향상 지원금 등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이윤재 한국선주협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앞으로도 해양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최민선 목포해양대학교 총장은 "우수 해양인재 양성 등에 매년 아낌없는 후원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한국선주협회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목포=김준석기자 kjs0533@

장학금·음악회 훈훈... 연산동 '소통의 자치' 돋보이네

9년째 작은 음악회 개최 인기 고교생 4명에 장학금 전달도 주민자치 롤모델로 떠올라

목포 원도심의 한 동(洞) 주민센터가 지방자치 시대 주민자치의 롤모델로 떠오르고 있다.

주민 6000여명에 불과한 목포시 연산동(동장 김경만) 연산동은 자생조직을 중심으로 9년째 '자지만 아주 특별한 음악회'를 개최해 목포 대표 상설 음악회로 발전시키는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에는 '연산 푸른 장학회'까지 설립하고 지역인재 육성에도 앞장서는 등 주민자치를 실천하고 있다.

지난 2007년 5월 첫 선을 보인 '연산 푸른 음악회'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매년 4차례씩 총 36회에 동안 개최되면서 원도심 지역 주민들을 하나로 묶어 주는 소통의 다리 역할을 해오고 있다.

지난 24일 오후 산정농공단지 완충녹지 야외무대에서 열린 '제36회 연산 푸른 음악회'에도 지역민이 모두 모여 화합의 장을 펼쳤다.

음악회 무대인 야외무대 주변은 총 5400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주민들 사이에서 '아파트 숲 속에서 열리는 작은 음악회'로 인기



목포산정농공단지 야외무대에서 지난 24일 열린 제36회 연산 푸른 음악회.



노연택 위원장

가 높다. 여타 음악회처럼 화려한 무대는 없지만 회가 거듭할수록 입소문이 나면서 평균 관객이 500명을 넘어설 정도다.

이날 음악회에서도 난타, 밴드공연, 바이올린과 첼로 앙상블, 색소폰, 통기타 연주 등 가을 정취가 물씬 나는 가을 공연을 선보였다.

특히 이날 음악회에서는 연산동 거주 고등학교 3학년생 4명에게 1인당 50만원씩 장학금을 전달하는 의미 있는 행사가 진행되기도 했다.

이날 장학금은 노연택(55) 주민자치위원장이 지역 인재육성과 우수 인재의

외지 유출을 막기 위해 3000만원을 기부한 것으로, 첫 장학금이 지급됐다.

노 위원장의 장학금 기부를 시작으로 연산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최근 '연산 푸른 장학회'를 설립했으며, 동참을 바란 산정농공단지 기업인협의체와 주민 등을 대상으로 '1구좌 1만원' 장학금 기부 릴레이도 진행중이다. 이들은 장학사업을 확대를 통해 지역 대학생 해외연수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경만 연산동장은 "연산 음악회는 주민의 눈높이에 맞춘 게 인기의 비결이자 최대 장점"이라며 "음악회는 공연 외에도 서로 얼굴도 잘 모르는 어색한 이웃 사이를 연결하고 동어매 주는 촉매제 역할을 해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글·사진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목포해양청, 신안 먼도수도 해역 해상암초에 등표 설치

목포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형대)은 25일 "신안군 먼도수도 인근 해역의 암태면 재원도 남동방 해상암초에 통항선박 안전 운항 및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항로표지시설(등표)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사진> 등표가 설치된 먼도수도 항로는 목포항에서 새천년대로 공사구간을 지나 군산, 인천항을 오가는 중요 항로로 선박과 어선의 통항이 빈번하다.

재원도 남동방 등표는 높이 8.4m, 폭 4.0m로 2억6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으며, 지난 9월 완공 후 한 달간의 시험운영을 거쳐 정상 운영에 들어갔다. 등표는 인근 해역의 통항선박과 야간 조업활동을 하는 소형선박의 안전운항 등의 길잡이 역할을 하게 된다.



나선진 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과장은 "앞으로도 해상교통안전과 항해 위험요인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목포=김준석기자 kjs0533@

임종환 목포대 교수 지식창조 대상 수상

임종환 목포대학교 식품공학과 교수가 지난 15일 한국 과학기술정보연구원 주최 2015년도 지식창조대상 시상식에서 농림수산식품분야 지식창조대상을 수상했다.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상인 지식창조대상은 국제적으로 학술적 공헌도가 높은 국내 최고 과학자의 공적을 기리는 상이다. 특히 지식창조 대상은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급 논문인용 기준 16개 주제 분야별 세계 상위 1%의 피인용 논문을 대상으



임 교수

로 연구자의 학술적 성과를 정량적으로 계속해 수상하는 국내 유일의 상으로 최고의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다.

임 교수는 농림수산 식품 주제 분야 피인용 상위 1% 논문 3편이 국제적 학술 공헌도를 크게 인정 받아 이번 지식창조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임 교수는 20여년 동안 목포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식품공학 및 식품포장분야의 연구를 통해 190여편의 논문을 발표하는 등 식품분야 학문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목포=김준석기자 kjs0533@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3년

광주일보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대(代)를 이어 읽는 신문

예향'은 광주일보사가 발행하는 문화예술투매기입니다.

지방지사 (061)		시내지국	
광 산	062)944-0444	남 원 시	063)626-1601
군산시	063)467-2500	순 창 군	063)653-0444
정읍시	063)531-5544	서울보급소	02)313-5962

장성군	394-0400	담양군	383-8116	곡성군	362-8111	구례군	782-4696				
영광군	351-1004	함평군	324-8111	나주시	335-5501(시·군)	화순군	374-4423	순천시	746-8111	광양시	792-8111
신안군	278-8111	목포시	276-9200	무안군	452-8535	남원시	283-1540	보성군	852-9646(보성) 857-0686(별교)	여수시	692-0997
영암군	471-1717	장흥군	863-8822	강진군	434-6830	해남군	537-6767	고흥군	842-2121		
진도군	543-0100	완도군	554-6677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